

장터에서 마주했던 삶의 이야기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장터사진가 정영신씨 초대... 창작국악그룹 '그림' 도 출연

'하루는 충북 진천장에서 흥시감 몇 개를 가지고 나온 할머니에게 여쭙었어요. 할머니, 이거 팔려고 장에 까지 나오셨어요? 할머니는 '그냥 사람들 보고 싶은 마음에 나와 봤어~' 하시더라고요. 시골 장터에는 장날이 유일한 외출이고, 장에 나와야 친구 얼굴이라도 볼 수 있다는 어른들이 많습디다. 누군가와 얼굴 보는 일보다는 문자나 전화에 익숙해져가는 시대지만, 장터 곳곳에서는 늘 반가운 만남의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장터사진가 정영신의 글 중에서



정영신

국립민속국악원은 27일 오전 11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을 연다.

이날 자리에는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5일장을 모두 기록한 다큐멘터리 사진가 정영신 작가를 이야기 순남으로 초대해 그가 장터에서 마주했던 소박하고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전라남도 환경 출신의 정영신 작가는 소설가 지망생이던 시절, 사람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장터를 찾았다. 담배 한 갑 사드리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할매들과 사귀는 사이 '이 정 많은 장터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전국 5일장을 찾아 나선 세월이 어느덧 30년.

그는 그동안 전국 600여개의 5일장을 돌며 시골 사람들의 푸근한 삶의 이야기들을 흑백사진과 따뜻한 글로 담아냈다. '정영신의 시골장터', '정영신의 장터', '장에 가서', '장날', '정영신의 한국의 장터전' 등의 전시회를 가졌다. 저서로는 '시골 장터

연해서 '관 프로젝트 II' '오름의 시간' 'Spring Dance' '거미, 달을 삼키다'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2001년 창단 후 16년 동안 전통과 자연을 기반으로 한 세련된 음악을 발표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은 '하침풍경' 'Project II', 'Green Circle', 'Acoustic Island' 등의 음반을 발표했다. 그림은 드라마, 뮤지컬, 연극, CF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만드는 한편, 아시아와 유럽 투어를 통해 우리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편 10월에는 한옥에서 연주하는 전통음악을 녹음해 음반으로 만드는 약담이반(주) 김영일 대표를 이야기 순남으로 초대해 '한옥에서 만난 귀한 소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남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스프로젝트(JS's Project)가 출연해 삶과 고향의 정서를 담은 음악을 들려 줄 예정이다.

예약 및 문의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또는 전화 063-620-2324~5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이야기, '한국의 장터', '정영신의 전국 5일장 순례기', '장날' 등이 있다. 이 무대와 함께 하는 '우리 음악 즐기기' 시간에는 창작국악그룹 그림(The Hill)이 출

영화인 20명, 관객과 소통 나섰다

전주국제영화제, 내일 개최 '폴링 인 전주' 게스트 명단 발표

전주국제영화제의 수상작과 주요 상영작을 다시 만날 수 있는 '2017폴링 인 전주 FALLing in JEONJU'.

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지)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주영화제작소 및 남부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폴링 인 전주'의 참석 게스트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13명의 감독과 7명의 배우가 참석해 '관객과의 대화'에 나선다.

개막일인 28일 '국정교과서'의 백승우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이틀 남짓에는 '여수 밤바다'의 정형석 감독과 CGV 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을 수상한 '해피버스데이'의 이승원 감독이 관객들을 만난다. 같은 날 남부시장 하늘정원에서는 '파리의 밤이 열리면' 야외상영 후 '중급불이'를 연출한 이안 카 감독과 전북대학교 프랑스학과 조화립 교수가 참석해 영화에 대한 유익한 대화를 나눈다.

이어 30일에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대명컬처웨이브상 수상 영평을 안은 '튼튼이의 모험'의 주인공들이 함께 한다. '튼튼이의 모험'을 연출한 고봉수 감독, 주연 배우 신민재, 김충길, 백승환은 지난해 '벌타 보이즈'에 이어 올해에도 '폴링 인 전주'를 찾는다.

또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을 수상한 '폭력의 씨앗'의 임태규 감독, 배우 이기섭, 정재운, 박강식 그리고 전주시네마프 로젝트 2017로 제작되어 제70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현재의 영화' 부문 감독상을 수상한



'초행'의 김대환 감독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폴링 인 전주'의 마지막 날인 10월 1일에는 2015년 전주프로젝트마켓(PPM) 다큐멘터리 피칭 최우수

상을 수상한 후,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버블페달리'의 마민지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다.

같은 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유니온투지파트너스상을 수상한 '샘'의 황규일 감독과 배우 류선영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시민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프로그래밍한 '시민참여섹션'에서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이는 직접 작품선정에 참여한 시민들과 감독이 만나는 자리로서 특별함이 더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시민참여 섹션 1:시대난민'이 상영 후 '한낱의 우리'의 김해진 감독과 '오늘의 자리'의 허지은 감독이, 10월 1일엔 '시민참여 섹션 2: 무주공산' 상영 후 '주성치와 함께라면'의 금태경 감독과 '콘크리트의 불안'의 장윤미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국악 힐링 콘서트, 오늘 전통문화전당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전당 야간 공연 활성화를 위한 '국악 힐링 콘서트'를 27일 오후 7시 전당 야외무대에서 갖는다.

콘서트는 월드타악과 창작사물놀이,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 거리공연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이날 무대에는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전주기립놀이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전당 상주단체로 활동했던 합트마

을문화생산자조합(대표 김여명)이 함께 한다.

또한 드라마 '사랑은 그대 품안에' 출연, 주인공 차인표가 색소폰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실제 색소폰을 불었던 김기철 씨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색소포니스트 김기철은 이은미, 나훈아 세션, EBS 스페이스 공감, KBS 재즈클럽 등 다수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연주자이다.

오태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매월 마지막 주요일엔 전당에서 시민들이 공연을 보고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을 추석, 익산에서 즐기는 이색 볼거리와 체험

바람개비길 따라 걷고...
교도소 탈출 체험도 벌이고...

하루만으로 부족한 특별한 여행 떠나볼까?

긴 추석 연휴, 유명 관광지보다 낯선 여행에 도전해보자.

10일 간의 특별한 추석 연휴를 맞아 모처럼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나들이를 준비한다면 유명 관광지보다 이색적인 여행지를 선택해 보기에 딱 좋은 때이다. 전국의 유명 관광지에 비해서도 손색없고 오히려 도심과 농촌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이색 볼거리와 체험이 가득해 하루로는 부족한 특별한 여행지인 익산에서 1박2일을 떠나보자.

▲술술~ 바람개비 인생샷 아니면 썸... 성당포구 용안바람개비길

가을바람에 바람개비가 술~술~ 시원하게 돌아간다. 바람개비 길 옆에서 바로 용안생태공원 위쪽으로 금강 제방 돌길 4.8km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된 바람개비들이다. 금강과 맞닿은 파란 하늘과 함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사진을 만들어줘 인생사진 찍는 곳으로 더욱 유명하다.

실제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의 바람개비길, 성당포구 등 태그(특정 단어를 입력해 검색하면 게시물이 나오게 하는 기능)로 2,000여건에 육박하는 등 SNS에서도 화제가 됐다. 주말에는 사진을 찍으려 풍선, 꽃다발 등 소품을 준비해 온 젊은 연인, 삼삼오오 친구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바람개비가 설치된 이 제방길 구간은 대형캠에서 시작하여 부여를 거쳐 성당포구와 용포를 지나 군산까지 이르는 금강 종주 자전거길 코스이다. 때문에 이미 자전거동호인들로 부터는 많은 사랑을 받는 장소이며, 평일에도 여유롭게 바람을 가르기 위해 자전거를 타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옛 포구의 풍경과 아름다운 금강을 품은 이곳 성당포구마을에는 금강체험관과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위치: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087-12

▲탈출미션... 익산교도소세트장

푸른 잔디와 높은 담장으로 둘러진 교도소가 한눈에 들어온다. 생각했던 교도소 모습 딱 그대르라 오히려 낯 익기까지 하다. 이유는 '반방의 산물', '타짜'를 비롯해 '최강 배달꾼', '이름없는 여자', '크리미널마인드' 등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한번쯤 봤던 교도소가 바로 이곳 익산교도소세트장이기 때문이다. 교도소 내부 차가운 철문과 쇠창살, 이동 중 잡담금지, '반성하는 삶의 자세' 등의 교정 문구들이 벽에 적혀있어 실제 교도소 안

에 들어온 듯 착각을 더한다.

익산교도소세트장은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특별한 날 이색적인 남길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해지면서 주말에는 약 2천여명의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 촬영이 있는 날에는 외부통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다행히 모두 방문 가능하다.

사랑의 죄수 포토존, 다인실, 독방, 접견실, 취조실 등을 둘러볼 수 있고 무료로 죄수복을 입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특별한 기억을 남길 수 있다.

죄수복 입고 '별'을 단 특별 기념사진을 찍은 뒤에 탈출미션에 성공한 일반인들이 올해도 9월말 현재 5만이 넘는다.

*위치: 익산시 성당면 함남로 207

▲마음 힐링 보석 그레이트(GREAT)... 보석박물관

익산의 보석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마한시대부터 이어져 찬란한 백제문화예술의 꽃을 피워 온 익산은 국내 제일의 귀금속가공기술을 보유한 보석의 도시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 맞게 익산 IC부근에는 보석박물관과 대규모 보석 판매 단지인 주얼갤리스가 위치하고 있다.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박물관은 프랑스 투르브락 박물관을 옮겨놓은 듯한 이국적인 겉모습으로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햇살이 밝은 날에는 유리창에 빛이 반사돼 보석처럼 반짝거린다. 2006년에 개관한 보석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진귀한 보석과 원석 등 11만 여점이 전시되어 있어, 보석의 역사와 보석에 담긴 과학, 아름다움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추석연휴기간 모두 개방한다.

찬란한 빛 모듬은 보석에 마음을 빼앗길 주얼갤리스 또한 관람포인트. 주얼갤리스는 보석반지 형태로 지어진 주얼리 판매센터로 1.2층 64개 매장이 입점 되어 있다. 유럽과 중동지역 수출업체와 익산 귀금속단지 공장 직영업체, 국내 유명업체 및 해외 업체들이 현대적인 감각

용안 바람개비길, '인생샷' 찍는 곳으로 유명 교도소세트장, 무료로 죄수체험 즐길 수 있어 고스락, 경관 뛰어나 사람들의 발길 이어져

의 디자인과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빛어낸 주얼리 작품부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패션주얼리까지 100만점에 이르는 보석제품을 전시 판매한다. (주얼갤리스 10월2~5일까지 휴관)

*위치: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3,500개의 전통옹기들이 만드는 장관... 고스락

추석, 민족 최대 명절인 만큼 가장 한국적인 고유의 멋을 느껴보아야 제 맛이 아닐까? 3,500개의 전통옹기가 만든 장관을 익산시 함열읍에 위치한 '고스락'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긴 전통방식을 고집하며 맛과 향이 살아있는 전통장을 만들고 있는 고스락은 함열읍 다송리 이화동산 6면 16,000㎡ (약 2만여평)의 대지에 3,500여개의 장독대들이 정갈하게 들어서있다. 장을 담그고 판매하는 업체이지만 그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입장료와 주차요금은 무료이다.

입구의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면 조용히 흘러나오는 클래식과 장 익는 냄새가 방문객들을 맞이해준다. 곧게 뻗은 기와 담을 따라 3,500여개의 장독대들이 정갈하게 줄을 맞춰 자리 잡고 있고 곳곳에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찾아내는 것도 큰 재미이다. 산책로를 따라 전망대에 오르면 한눈에 들어오는 장독대와 가지런한 길, 멋스러운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진 절경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10월 5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위치: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424-14 /익산=장영원 기자

